제6강 취미판단의 제1계기: 성질의 범주에 따른 고찰 (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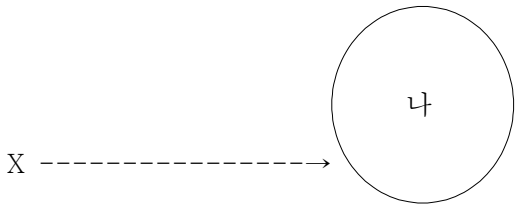
(1교시)

◆ 대상 인식의 문제와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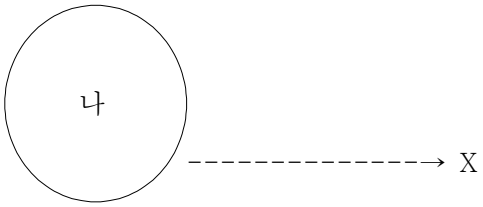
※ 지난 시간에 이어 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p.20, **§4. 선에 대한 만족은 관심과 결합되어 있다**를 읽는다.

▲ 현상과 표상

(1) 현상 (Erscheinung; appearance)
: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전제됨. 실재론자에게 적합



(2) 표상 (Vorstellung; (re)presentation)
: 주관이 무언가를 앞세운다는 의미. 관념론자에게 적합



▲ 관념론과 실재론

※아래의 구분은 '대상을 인식하는데 있어서' 관념론과 실재론이 갈리는 것을 간략하게 표기한 것이다.

■■ 실재론 ■■ 직접실재론 (객관을 그대로 안다.)
■■ ■■ 간접실재론 (객관을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안다.)
■■
■■ 관념론 (나의 정신 안에서 대상을 표상한다.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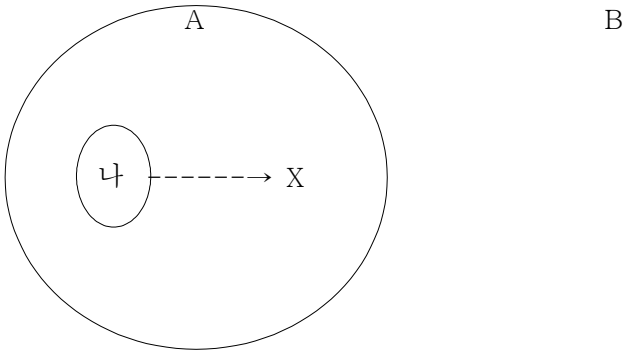
- 칸트는 주관적 관념론과 간접실재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. 거칠게 말해 칸트는 관념론자에 속하므로 '표상'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.

※ 'representational realism'의 번역
  a. 표상적 실재론
  b. 재현적 실재론
 - a, b 모두 쓸 수 있지만 칸트나 후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내용에서는 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.

▲ 현상학

(1) 후설이 대표적이나 그 연원은 칸트, 헤겔에 닿아있다.

(2) 현상학의 범위
- 형이상학의 전통에서는 '나'와 '바깥에 있는 어떤 것'을 두었다.
 칸트에 이르면 내재적(immanent) 영역과 초월적(transcendent) 영역의 범위를 구분한다.
 아래 그림에서 A 부분을 내재적이라 하고 B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초월적이라 하자.



- 현상학에서는 철저히 A의 영역만을 다룬다.
  ■■ noesis : 사유작용
  ■■ noema : 사유되는 것 =(내재적인 범위 안에서) 내 바깥에 있는 것

- 선험적(transcendental)
: 내재적 영역(A) 안에서 나의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. 초월적인 것과 뚜렷하게 구분해야 한다.

▲ 만족의 세 가지 종류
■■ 쾌적(快適): 감각적 만족 ■■ 관심과 결부된 만족
■■ 선(善) : 도덕적 만족 ■■
■■ 쾌(快) : 미적 만족 - "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"(p.25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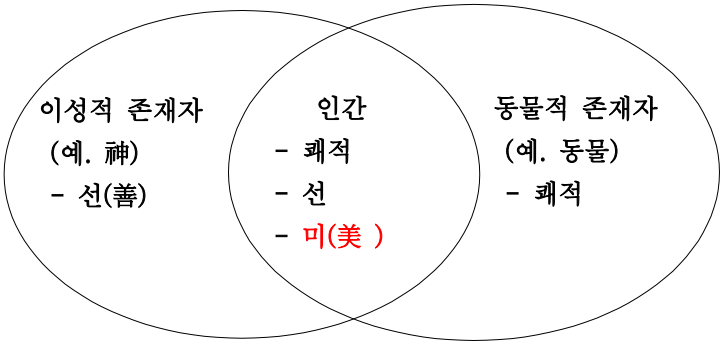
(2교시)

◆ 아름다움과 인간의 완성

※ p.25 오직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부터 살펴본 후 취미판단의 제2계기 첫 부분으로 넘어간다.

▲ 이성적이면서 동물적인 존재인 인간

"미는 오직 인간에게만, 즉 동물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존재자에게만,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(예컨대 정신)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물적 존재자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." 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 p.25



▲ 인간의 도야와 미(美)

- 아름다움(美)은 인간이 동물성만의 상태에서 벗어나 도야하는 길에 반드시 들어간다.

대상이 감관을 자극 경향성	아름다움을 발견 (사랑) 호의	도덕적 관심 존경

※ 공자의 '不惑, 知天命, 耳順, 從心'과도 유비되는 면을 찾을 수 있다.

▲ 제1계기에서 도출되는 미에 대한 해명

"취미란 대상이나 표상 방식을 아무런 관심 없이 만족 또는 불만족을 통해 판정하는 능력이다. 그리고 그와 같은 만족의 대상이 아름답다고 일컬어진다." p.26~27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 바깥에 아름다운 어떤 것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.
 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인간 정신의 문제이다.

▲ 취미판단의 분량범주

※ **"취미판단의 제2계기 : 분량의 범주에 따른 고찰"** (p.27)을 읽기 시작.

※ 분량범주 ■■ 단일성 ----- 단칭판단
■■ 다수성 ----- 특칭판단
■■ 전체성 ----- 전칭판단

- <u>취미판단('~은 아름답다')은 분량 범주상 단칭판단에 속한다.</u>

■■ 이 장미는 아름답다. ----- 단칭판단: 취미판단
■■ 어떤 장미는 아름답다. ----- 특칭판단 ■■ 취미판단에 근거한 논리적인 판단
■■ 모든 장미는 아름답다. ----- 전칭판단 ■■

▲ 감성적인 보편성

- 취미판단은 단칭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주장한다.
  : 단칭판단의 보편성, 감성적인 보편성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